



‘파업 후 과업’ 이어받은 제25대 노조 집행부 출범 “박사장, 구성원 뜻 존중해 거취 결정하는 환경 만들 것”

103일간의 역사적인 연합뉴스 바로 세우기를 위한 총파업 이후 연합뉴스 노동조합을 이끌어 갈 제25대 집행부가 공식 출범했다.

고일환(1998년 입사) 신임 위원장은 10월9일 본사 7층 대회의실에서 열

린 집행부 출범식에서 “외나무다리에서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일 없이 대화로 문제를 풀도록 힘쓰겠다”며 파업 이후 과업을 넘겨받은 집행부의 지향점을 제시했다.

고 위원장은 “싸워야 할 때라면 싸우는 게 노조이고 그런 상황이 온다면 회피하지 않겠다”면서도 “우선 우리 조합원들이 업무 현장을 떠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총파업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박정찬 사장 거취와 관련, “박 사장이 연합뉴스 구성원의 뜻을 존중해 거취를 판단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가능하면 웃는 모습으로 헤어지는 상황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또 전국언론노조와 연대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고 위원장은 덧붙였다.

총파업을 성공리에 이끌고 자리를 넘기게 된 공병설 전 위원장은 “파업 이후 외부에서 ‘연합뉴스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누구

도 연합뉴스에 대해 사익을 앞세워 장난칠 수 없다는 자신감을 갖고 25대 집행부가 당당히 출발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강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장지호 언론노조 정책실장, 강진구 경향신문 지부장, 유성우 EBS 지부장, 이송 신문통신노조협 의회의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강택 위원장은 축사에서 “총파업 뒤 밖에서 ‘연합찌라시’ 소리를 들어본 적 있느냐. 이제 어느 누구도 연합뉴스를 더는 흔들지 못한다”고 격려했다. 노조 집행부 출범식에서 관례적으로 축사를 했던 사장은 이날 불참했고 경영진에선 장익상 총무·기획 상무만 참석했다.



노조는 파업 종료 후 노사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한 공정보도, 노동 여건 개선, 사내 민주화, 지역취재본부 여건 개선, 지방.연봉사원 차별 해소 등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노조는 파업 종료 후 노사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한 공정보도, 노동 여건 개선, 사내 민주화, 지역취재본부 여건 개선, 지방.연봉사원 차별 해소 등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노조 집행부 출범식에서 관례적으로

25대 노조 집행부

- 위원장: 고일환
- 부위원장: 정윤덕
- 황선익
- 사무국장: 강훈상
- 총무부장: 김민희
- 교육부장: 임기창
- 쟁의부장: 이웅
- 조직부장: 홍정규
- 조사부장: 안희
- 복지부장: 이울
- 홍보부장: 박상돈
- 여성부장: 송진원
- 지방부장: 백도인

공정보도위원회

- 간사: 장용훈
- 부간사: 임화섭

취임사



안녕하세요. 제25대 연합뉴스노조 위원장을 맡게 된 고일환입니다. 출범식 장소인 동관 7층에서 조합원들의 얼굴을 마주보려고 하니 자연스럽게 파업

쓰겠습니다.

일단 박정찬 사장이 연합뉴스 구성원의 뜻을 존중해 거취를 판단하시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죄를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가기간통신사 연합뉴스의 모든 것을 뒤죽박죽,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는 경영자이지만, 그래도 한지붕밑에서 일했던 분입니다.

될 수 있다면 웃는 모습으로 헤어지는 상황을 만들고 싶습니다.

연합뉴스의 공정성과 노동조건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만과 우려는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방.연봉사원 등에 대한 차별문제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산적한 문제들의 해법을 찾기 위해 조합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사측과 대화에 나서겠습니다.

25대 연합뉴스 노조는 상식과 합리를 토대로 항상 대화하며 깨끗이 일한 24대 노조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가겠습니다.

또한 언론자유 수호를 위한 방패막이인 전국언론노조와의 연대도 강화하겠습니다.

물론 승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조합원 여러분의 도움입니다.

조합원 여러분이 노조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때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파업을 끝낸지 벌써 100일이 지났는데도 마치 어제 일 같습니다.

아직 생생한 파업의 기억 때문인지 몇몇 조합원들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데 위원장직을 맡아도 괜찮겠느냐.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걱정의 말씀이었습니다.

싸워야 할 때라면 싸우는 게 노조이겠지요.

그런 상황이 온다면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선 우리 조합원들이 업무 현장을 떠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나무다리에서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일 없이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도록 힘

2012년 10월9일

전국언론노조 연합뉴스 지부 제25대 위원장 고일환

박정찬 사장 장남 결혼식 성료

결혼식장 빛낸 MB 화환...MB 측근들도 방문

박정찬 사장 장남의 결혼식이 10월 중순의 어느날 오후 6시30분 세종문화회관 1층 '세종홀'에서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관공서가 밀집한 광화문의 지리적 특성 때문인지 결혼식 한시간 전부터 정·관·재계의 유명인사들이 줄을 섰다.

국가기간통신사 연합뉴스의 위력은 대단했다. '작은 결혼식의 전도사'로 불리는 김항식 총리까지 그다지 친분이 없는 박사장 장남의 결혼축하를 위해 직접 세종홀을 찾았을 정도다.

결혼식장을 가장 화려하게 빛낸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보낸 화환이었다.

포항 출신 중 첫 메이저 언론사 사장으로 알려진 박사장은 동향인 이 대통령의 화환을 세종홀 출입구 오른쪽에 따로 배치해 놓았다.

박 사장과 이 대통령의 '특수관계'를 방증이라도 하는 듯 결혼식장에선 MB와 인연이 깊은 인사들의 모습이 유독 도드라지게 느껴졌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실제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했던 정진석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결혼식이 시작하기 한참전부터 식장주변에서 서성이는 모습이 목격됐다.

최근 조선일보에 '작은 결혼식'을 약속한 권재진 법무부장관도 눈에 띄었다. 김윤옥 여사의 동네 후배로도 알려진 권 장관은 현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청와대민정수석을 역임했다.

친이(親李)계인 박 진 전 새누리당 의원도 결혼식장을 빛냈다.

'3부 요인 화환만 받기로 했다'는 회사 간부의 발언대로 이날 식장에는 이 대통령의 화환과 강창희 국회의장의 화환이 진열됐다.



다만 또 다른 3부 요인인 양승태 대법원장의 화환은 식장에서 찾을 수 없었다.

두 딸을 각각 법원 예식장과 교회에서 간소하게 결혼시킨 양 대법원장은 최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결혼은 각자의 가치관과 능력에 따라 선택할 사안인 만큼 일률적으로 '옳다, 그르다' 재단할 수는 없지만 저라면 백만장자라도 그렇게 치르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같은 양 대법원장의 소신을 감안한다면, 그는 박사장에게 화환을 보낼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세종홀에 진열된 화환은 신랑 회사측에서 보낸 것으로 보이는 화환을 포함해 3개뿐이었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수의 화환이 배달됐다는 후문이다.

결혼식 한시간여 전부터 세종홀 외부에 배치된 연합뉴스 총무부 직원들은 배달되는 화환의 리본만 떼어내 보관한 뒤 발송자에게 화환을 반송했다.

이 탓에 이날 얼마나 많은 화환이 배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발송자 정보를 메모한 백지엔 화환을 보낸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지난 2010년 같은 장소에서 열린 박사장 장녀 결혼식에는 화환을 진열할 공간이 부족했다고 한다.

연합뉴스 총무부 직원들은 화환 반송 업무뿐 아니라 식장 안에서 하객들의 좌석 안내까지 각종 업무를 담당했다.

총무부 외에도 많은 연합가족들이 식장을 방문했다.

경영진을 비롯해 현직 국·실장들은 대부분 참석했다. 이명조 정치부장과 김경석 산업부장은 국·실장은 아니지만 정치권과 재계 하객 의전을 위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사장이 취임 후 처음 임명한 편집국장으로서 한명숙 전 총리 공판보도를 비롯해 각종 편파보도의 지휘책임을 져야 할 박노황 인포맥스 사장과 뒤를 이어 편집국을 이끌었던 이래운 뉴스와이 보도국장 등 전현직 연합가족들의 모습도 보였다.

4월 총선 출마 문제와 관련해 비(非) 언론인을 자처했던 박호근 전 인포맥스 사장도 하객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결혼식의 주례는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이 맡았다.

지난해까지 총장직을 맡으면서 수많은 어록을 남겼던 이 전 총장은 이날 특유의 입담으로 세종홀의 600석 테이블을 가득 채운 하객들을 웃겼다.

그는 박 사장이 고려대 73학번이고, 신부측 아버

지도 고려대 78학번이라는 사실을 소개한 뒤 "고려대는 대한민국 3대 조직 중의 하나다. 오늘 결혼식은 고려대 교우 집안간의 성스러운 결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박사장의 장남에 대해 "박사장에게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주례를 위해 한번 만나봤는데 대단하다. 대한민국을 짊어질 것"이라고 칭찬했다.

이와 함께 이 전 총장은 신랑과 신부가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러브스토리를 소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하객들이 가장 큰 반응을 보였던 대목은 이별의 위기였다.

때는 리먼사태가 발생한 지난 2008년 이후, 신랑이 육군 통역병으로 근무하던 시절이었다. 당시 첫 휴가를 나온 신랑은 여자친구인 신부를 만나지도 않고 이탈리아 여행을 떠났다. 외국 친구들의 초청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신부는 첫휴가를 나온 남자친구가 단순히 외국친구들과 놀겠다는 이유로 해외여행을 떠난 것에 격분했지만, 결국 화를 풀었다고 이 전 총장이 전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병사가 휴가를 이용해 해외여행을 하려면 장성급 이상 지휘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류작업 등이 번거로운 탓에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한다.

